

기획예산처·중장기전략위원회, 미래 신산업 발굴·육성전략 및 R&D 혁신방안 등 논의

- 시장수요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신산업 발굴·육성전략 논의
-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&D 혁신전략 논의

-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(이하, 위원회)는 '26.7.9.(목) 「제7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
< 위원회 개요 >

- (기능)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(2012년~)
- (위원) 권오현 위원장(前삼성전자 회장),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
- (분과) ①혁신성장반*(AI, 바이오 등 주요산업·경제), ②미래사회전략반(인구, 교육, 노동, 기후 변화 대응 등), ③거버넌스개혁반(정부혁신, 규제개혁, 균형발전 등) 등 3개

* (혁신성장반, 8명)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(분과장),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,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,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,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,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, 최윤희 산업연 연구위원,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

- 금번 회의에서는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전략과 R&D 혁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- 참석자들은 시장수요와 글로벌 트렌드 등을 반영한 신산업 발굴·육성 전략(차세대 배터리,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등)과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&D 혁신전략을 논의하였다.
 -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신성장 산업 발굴도 중요하지만,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도 중요하다고 하였다.

-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웹툰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, 티빙 등 한국 OTT 플랫폼의 글로벌화 가능성, 팬덤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한국 콘텐츠 산업의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.
-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한국이 경쟁력 있는 방산 산업의 AI 결합과 조달체계를 연계한 AI 기반 무기체계를 새로운 R&D 전략 분야로 설정하여 선도형 R&D 모범사례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.
-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기존 정부 지원 중심의 R&D 체계를 개편하여 기업·대학·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가 연결되는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 기반 R&D 지원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.
- 참석자들은 미래 신산업 분야 선정시 청년 등 다음세대의 선호와 참여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.
-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	박철건 (044-214-1610)
		담당자	사무관	어우주 (hidwn@korea.kr)
	미래전략기획실 혁신경제전환과	책임자	과 장	신명석 (044-214-16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재현 (z56543@korea.kr)

